

## 11.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 요한복음 13장 1-11절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중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 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 저녁 잠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걸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8.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이라 그려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 나중에 알게 되는 것들. . .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나중에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을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의 문제입니다. ‘고난’ 만큼 우리들이 수용하기 힘든 것은 없는 듯합니다.

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 “명탐정 고난”

나는 이놈의 지긋지긋한 ‘고난’이라 이름 하는 것들이 끝나면 내가 좀 변하겠지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버티었는데 희한하게도 이것들은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오고 그 하나가 끝나면 또 둘이 오고 셋이 와서 명탐정 코난도 아닌데 도무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다.

도저히 못 버티겠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고난’은 그대로인데 신비롭게 ‘나’는 점점 변해 갔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건 내가 안 변할 때는 고난이던 것이, 내가 변하고 나니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건 이것인데 고난이 끝나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고난이 끝난다는 것이다. 그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다.

## 용서라는 정거장을 지나서. . .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제자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족 목요일’이라 불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신 장면입니다.

he now showed them the full extent of his love.

‘끝까지’라는 말 가운데 참 힘겨운 사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full extent’이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넓힐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넓혔다는 의미입니다.

### 사랑은 그렇게 아름답거나 낭만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최대한 확장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팔을 한 없이 벌렸습니다. 아마도 팔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을 것이고, 못에 달려있는 팔이 찢어지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왜 일까요?

배신한 제자를 사랑하기 까지 그 사랑을 넓혀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아픔을 견여야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지나 해 초에 부서 헌신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요일에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의 정의들이 참 아픈 것들입니다.

오래 참는 것도 힘들고, 친절한 것도 힘들고, 온유한 것도 힘이 듭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를 보면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범위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필산 목사님이 어린 시절 아버지에 대한 큰 불만이 있었답니다.

지금처럼 TV가 흔치 않던 시절, 집안에 한 대 있는 TV 시청의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죠.

당시 아버지는 권투를 무척 좋아하셔서 토요일이 되면 무조건 온 식구가 권투를 보아야 했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면 나도 마음대로 TV를 볼 수 있겠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되고 나니, TV앞에서 ‘뽀로로’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첫째부터 막내까지 10살 터울이 되니 참 오랫동안 만화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자신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는 아빠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에는 사랑이 무척 힘겹게만 느껴집니다.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성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그저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사랑이 아니라, 뭐가 특별한 의지가 필요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봅니다.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제자의 배신입니다.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이죠.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라 ‘십자가의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이셔야 했던 사랑은 그리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세족식’이라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용서’의 과정을 지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용서’는 ‘사랑’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아주 포괄적이어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용서는 아주 구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용서 했다고 합리화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 용서가 힘든 이유를 ‘잘 미워하는 과정’을 지나지 않고 다다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거장을 거치지 않고 종점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신앙의 조언을 받습니다.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참 힘이 듭니다. 미운 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리고 이런 말도 듣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용서하기 전에 “잠깐 미워해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미움이 종착역이 아니라, 용서를 위해 미움이라는 정거장을 거쳐 가라고 말입니다.

모든 감정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고 나면 ‘애도의 시간’이 필요

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나면 그 감정이 정리가 될 텐데 슬픔을 얹누르고 있으면 감정에 얹눌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 해 한 가정이 저를 찾아 왔습니다.

처음 만나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했던 가정입니다. 이유를 모르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하고 나서도 예배시간마다 온 가족이 우는 모습을 봐야했습니다. 바로 그 가족들이 저를 만나자고 찾아온 것이죠.

안타까운 이야기 였습니다. 그렇게 젊은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와 머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날 밤 병원 응급실에 가서 깨어나지 못하고, 수술을 했지만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 가족에게 어머니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었을까요?

그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위로금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부모가 쓸 수가 없어서 의미 있는 현금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찾아온 것이죠.

그 어머니가 저에게 질문을 하더군요.

“목사님,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들 방에 있는 물건들을 그냥 버릴 수 없어서 갖고 싶은데 괜찮은가요? 사람들은 죽은 망자의 것이니 버리라고, 빨리 잊어버리라고 하는데. . .”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슬픔을 잊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세요. 아들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버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버려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받은 교육 때문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로하고 상담하는 훈련을 받으며 지낸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부서에는 늘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로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던 병원에는 유독 마약에 중독되거나 10대 미혼모들이 많았는데, 유산이나 사산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아이를 잃은 산모를 만났을 때, 조금은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산모들에게 보여주는 사진 때문이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난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위로하는 모습이었죠.

이유는 죽은 아이를 잊는 것보다, 아픔과 상처를 마주대하고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묻어 두는 것보다 현실에서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상황들입니다.

‘미움’과 ‘용서’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꺼내 놓아야 용서로 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시편기자의 감정들을 적나라하게 만나게 됩니다. 슬픔도 있고, 원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원하며 복수를 부탁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기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와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깊은 감정들을 하나님께 다 내보기고 나니,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놓을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감정을 참 솔직하게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셨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고 나니, 더 간절하게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가상 칠언’이라고 하는데, 어떤 말들 이었는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위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감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아픔과 괴로움 그리고 미련에서부터 위대한 용서와 승리의 선포까지 말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약함을 넘어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이 모든 약함을 넘어서, 십자가의 아픔과 부끄러움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 했다는 것입니다.

‘감정 정화’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욕도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감정이 정화가 됩니다.

그냥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 미워하는 감정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세속식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3년이나 다녔으니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신자가 나온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밉지 않았

을까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니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먼지 구덩이를 밟고 돌아다닌 발이 참 더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걸어 다닌 발을 보니 이런 저런 모습으로 변형된 발가락도 있지 않았을까요?

당시의 위생 상태를 생각해 보면 발로 인한 질병, 혹은 무좀에 걸린 발도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냄새도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보신 제자들의 모습 ‘아직도 참 더럽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기대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아직도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보니 더 사랑해야겠다고, 예수님의 사랑의 지경을 더 넓혀야겠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씻기시려고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아주 엉뚱한 대화들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지 않으면 관계가 없다고 하자 9절에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무튼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베드로지만, 그의 마음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는 ‘가룟 유다’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목욕을 한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다. 내 관심사는 위생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끝까지’라는 말이 ‘십자가’를 생각나게 합니다.**

끝까지라는 말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동시에 십자가에서 한 없이 팔을 벌리고 죽으신 아픔이 느껴집니다.

과연 나에게, 우리들에게 끝까지는 무엇일까요?

일본 나가사키에 가면 1597년 2월 5일 26명의 일본인 순교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이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 6명과 일본인 신자 20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토에서부터 천 칠로에 이르는 거리를 끌려갔고, 십자가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본래 그 중에 한 사람은 열두 살밖에 되지 않아 십자가를 받지 않도록 열외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때 소년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 십자가는 어디 있나요?” 그렇게 그 소년은 26번 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26명의 순교자들을 기념해서 만든 동상입니다.



일본의 선교 역사는 1549년 규슈 남단 가고시마에 도착한 프란시스코 자비에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한 때 신자 수가 80만을 넘을 정도로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159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금교령과 1614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금교령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데, 당시 30만이 넘는 선교사와 신자들이 체포, 추방, 개종을 강요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핍박은 세계 교회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잔인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슬람의 박해로 인해 순교한 이들도 있습니다. 2015년 4월 10일 리비아에서 에티오피아 기독교인 34명을 해변으로 끌고 가 사살한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1월에도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인 21명을 해변에서 참수했고, 이들은 순교자로 간주되

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가사키에서 순교한 12살 소년처럼, 혹은 리비아에서 참수를 당한 크리스천들처럼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매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묻고 계시고, 우리 또한 계속해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는 우리들에게 늘 십자가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생이요 주님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제자들을 섬김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끝까지’라는 단어 가운데 다가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구나!” 포기하지 않았기에 끝까지 함께하고 지켜주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나가사키의 순교자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교토에서부터 천 킬로가 넘는 길을 이들이 맨발로 걸어가야 했던 순간들,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함께 했던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순교 역사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래 스물네 명이 나가사키까지 맨발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함께 그 길을 걷은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두 명의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이 감명을 받고 그들의 여정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스물여섯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끝까지 이 길을 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같이 걸을 수 있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므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아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상황을 그려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참 힘든 일이죠.

누군가 우리가 왜 사랑하는지, 왜 희생하는지 그 수고를 알아준다면 지금의 고통이 가치 있는 일일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속으로 혼자 다 감내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팔아버릴 유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날 밤이 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 할 베드로의 발을 닦아 주셨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현장에 아무도 있지 않을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셨습

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우리들이 끝까지 사랑해야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닐까요? 히브리서 4장 15-16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려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둑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인니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분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이 궁휼하심을 받았고, 그 궁휼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끝까지’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직면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때로 불평하고 아파하고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담다하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